

현대차그룹, 5년간 ‘역대 최대’ 125조2000억 국내 투자

36조원 늘려 AI·로봇 육성·그린에너지 생태계 초점

1차 협력사 관세 전액 지원…서남권에 수전해 플랜트

현대자동차그룹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총 125조2000억원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직전 5년(2021~2025년)간 국내에 투자했던 89조1000억원을 36조1000억원 가량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 투자다.

연평균 투자 금액(25조400억원)도 직전 5년의 17조8000억원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대규모 중장기 국내 투자 결정은 그룹의 근원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차원이며, 글로벌 모빌리티 핵심 허브로서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 AI·로봇산업 육성 및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 등을 통해 국가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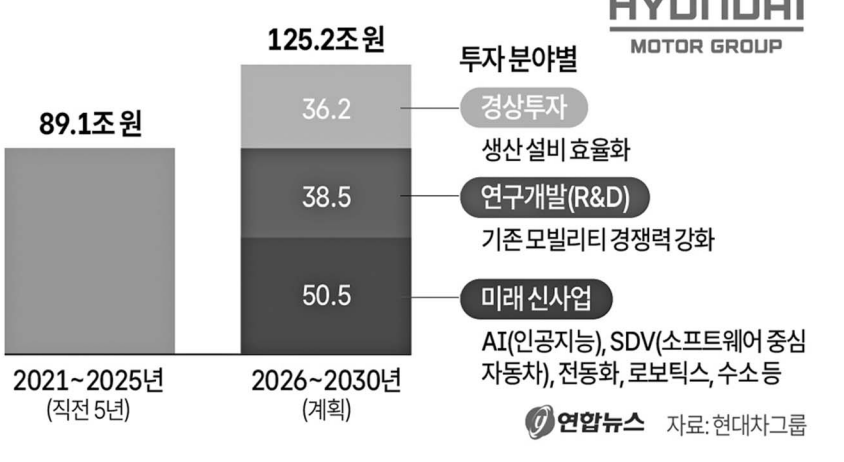
활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AI(인공지능),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동화, 로봇틱스, 수소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50조5000억원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투자에 38조5000억원 △경상투자에 36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중장기 투자는 그룹의 신사업인 AI·로봇 산업 육성과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에 초점이 맞춰진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엔비디아와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차량 AI,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로봇틱스 등의 경쟁력

현대차그룹 중장기 국내 투자 계획



강화에 힘쓰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AI 역량 고도화에 필수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 고전력 ‘AI 데이터 센터’도 건립한다. AI 데이터센터는 퍼지컬AI, 로봇, 자율주행차 등에서 생성되는

AI 학습 데이터 저장에 가능한 PB(페타바이트)급 데이터 저장소를 확보한다.

여기에 ‘현대차그룹 퍼지컬AI 애플리케이션 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이곳은 AI를 통해 대규모 행동 데이터를 학습한 로봇의

완성도와 안전성을 검증하고, 실제 산업현장 투입 전 신뢰성을 최종 점검한다.

현대차그룹은 퍼지컬AI를 활용해 확보한 고객 맞춤형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완성품 제조 및 파운드리 공장’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사업 영역을 로봇 제작에 더해 중소기업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까지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은 그린에너지 생태계 발전을 위해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기 개발 등에도 투자한다.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서남권에 1GW 규모 PEM(고분자전해질막) 수전해 플랜트를 건설하고, 인근에 수소 출하센터 및 충전소 등도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PEM 수전해기 및 수소연료전지 부품 제조 시설을 건립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 지자체 등과 협의회 AI, 수소, V2X 등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핵심 신기술을 접목시킨 수소 AI 신도시가 조성되도록 투자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동남권(울산, 창원), 서남권(광주, 전주), 중부권(아산, 진천, 서산, 충주, 천안), 대경권(대구, 경주, 김천), 경기 지역(화성, 광명, 평택)에 완성차 공장 및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수십 종의 신차 투입을 위한 라인 고도화에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

현대차그룹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가 올해 실제 부담하는 대미 관세를 소급 적용해 전액 지원한다. 현대차·기아와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가 부품 등을 그룹 미국 생산법인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부담한 관세를 매입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삼성, 광주에 플렉트 생산라인 검토

국내 5년간 평택 반도체거점 등 450조 투자

삼성SDS, 전남에 AI데이터센터 건설 추진

삼성그룹이 향후 5년간 국내 연구개발(R&D)을 포함해 총 450조원을 투자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거점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5공장 공사를 개시하고 전남에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나서는 등 전남위주 지역 투자에 나선다. 광주에는 산업용 공조기 제조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또 향후 5년간 6만명을 신규 채용하고 사회공헌사업(CSR)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16일 최근 임시 경영위원회를 열고 평택캠퍼스의 2단지 5라인(5공장)의 골조 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택캠퍼스 5공장은 2028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그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지역 투자도 확대한다.

삼성SDS는 전남에 대규모 AI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삼성SDS는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건립할 SPC(특수목적회사) 컨소시엄의 주사업자다.

AI 데이터센터는 2028년까지 1만5000

장 규모의 GPU를 확보하고 학계,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 이를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11월 초 인수를 완료한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렉트그룹(플렉트)의 한국 생산라인을 건설한다.

플렉트는 광주시에 생산라인 건립을 검토 중이며 인력 확충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삼성의 개별 공조와 플렉트 중앙공조 사업을 결합해 시너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삼성SDI는 이른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의 국내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력한 후보지로 울산 사업장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사업장에 구축중인 8.6세대 IT용 OLED(유기발광 다이오드) 생산 시설을 구축 중이다. 올해 말 시험 가동에 들어간 후 내년 중순께 IT기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다.

삼성전기는 2022년부터 고부라 반도체 패키지가만 거점 생산 기지인 부산에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사업장에서는 고난이도의 서버용 패키지가만을 개발해 양산 중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3조3000억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 출시

오늘부터 은행별 순차 출시…원스톱대출 가능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16일 밝혔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상생보증 대출이다.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1억원(개인사업자 5000만원), 최대 10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한다. 보증 비율은 90%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총 6만 명에게 3조30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지역신보가 심사 기본 요건을 제시하고 은행이 자체 심사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신용 평점 710점 이상·업력 1년 이상, 수익

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한다.

지역신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방정부 주관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17일에는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8개 은행이 먼저 출시하고 28일에는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6개 은행이 출시한다.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이외에도 성실 상환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마지막 상품으로 최근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5000억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 대출’(1조원)이 출시됐다.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억원(운전·시설자금)에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한다. 연립뉴스

치솟는 기름값…휘발유 1800원대 속속 등장

8개월 만에 광주·전남 평균가격 1700원 돌파

유류세 환원·고환율·국제유가 등 상승 요인

광주·전남지역의 주유소 휘발유값이 8개월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오후 9시 기준)에 따르면 광주 휘발유 가격은 지난 3월 4일 1701원에서 6월 11일 1612.07원으로 떨어지 이후 160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해오다 지난 13일 1700원을 넘었고, 이날 1712.46원을 기록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 13일 1601.65원으로 1600원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1619.16원으로 전일 대비 2.18원 올랐다. 광주 경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23일 1399.07원을 기록한 이후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다.

전남도 비슷한 추이다.

이날 전남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일보다 1.05원 오른 1720.60원이다. 지난 3월 19일 1700.16원을 기록한 뒤 8개월 만인 지난 10일 1700.10원을 기록

하며 다시 1700원을 넘어섰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1712.46원으로 전일 대비 0.71원 올랐다.

지난 6월 12일 1497.52원을 기록한 이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2월 21일 이후 2년 8개월 만에 1600원대를 기록했다.

휘발유 판매가격이 1800원을 넘긴 주유소도 속속 등장했다. 광주 광산구 월전동 A주유소가 1867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 광산구 산정동 B주유소 1857원, 광주 남구 주월동 1829원으로 확인됐다.

전남은 광양시 광양읍 C주유소 1895원, 담양군 가사문학면 D주유소 1890원, 장성군 북하면 E주유소 1889원, 완도군 금일읍 F주유소 1850원 등 1900원대를 눈앞에 뒀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이미 1700원대를 넘겼다.

지난 11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17.62원으로 확인됐다.

이날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21.60원으로 전일보다 1.46원 올랐다. 평균 휘발유 가격이 1700원을 넘긴 것은 올해 3월 11일(1700.14원) 이후 8개월 만이다.

경유 평균 가격은 1712.46원으로 지난 2023년 11월 22일(1604.08원) 이후 처음으로 1600원대를 넘겼다.

국제 유가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의 11월 2주 국내유가동향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주요 기관의 석유 전망 보고서 발표 이후 시장 내 공급 과잉 우려 심화로 하락했으나, 러시아 공급 감소 가능성 등이 하락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 주보다 0.5달러 내린 64.9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4달러 상승한 80.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6달러 오른 96.4달러로 집계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채무조정 이행자 저리 대출 ‘새도약론’ 출범

3%대 금리·최대 1500만원…7년 미만 연체자 특별 채무조정도

정부가 2018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차주 약 29만명을 대상으로 연 3%대 저금리 소액대출을 지원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인 ‘새도약론’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뒤 금융회사나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조정을 거쳐 남은 빚을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들을 위한 저금리 특별대출이다.

채무조정 이행 기간 등에 따라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새도약론은 지난달 출범한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행 중인 이들은 제외됐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대출 총한도는 5500억원으로 3년간 운영된다.

금융위는 7년 전 연체가 발생한 뒤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를 약 29만명으로 추정하

고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된 뒤 3년 내에 소액대출을 신청하는 비중이 28.8%인 점을 고려하면 이 중 8만여명이 새도약론을 신청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해당하는 차주들은 오늘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도약론을 신청할 수 있다.

광주는 동구 금남로 148 에이타워워 6층, 북구 복문대로 117 로데오빌딩 405호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해 있다. 전남은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 6층에 들어서 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7년 미만 연체 차주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3년간 실시한다.

중위소득 125% 이하로 5년 이상·7년 미만 연체 차주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원금감면율 30~80%·분할 상환 최장 10년)으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한국농어촌공사는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2차 KRC-AX 추진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농어촌공사, 인공지능 전환 속도낸다

KRX-AX 전략 토론회…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추진

한국농어촌공사는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최근 ‘제2차 KRC-AX 추진전략 토론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국정과제를 현장에서 뒷받침하고, 공사가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지난 9월 1차 토론회에서 제시된 고위 업무에 맞춘 차별화 전략, 인공지능 위험도 평가 체계 수립, 분산된 인공지능 과제 통합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인공

지능 전환(AX) 추진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4대 전략과제인 국민과 함께 하는 인공지능, 일하는 방식 혁신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참석자들이 각 과제와로드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재난 대응, 농업융수 관리와 같이 공사의 실제 업무를 고려한 추진과제들이 적절하게 선정됐다”며 “인공지능 전환에서 공공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